

17세기 이후 장흥 보림사(長興 寶林寺)의 경관요소 해석

김규원*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소

Interpretation of Landscape Elements in Borimsa Temple after 17th Century

Kim, Kyu-Won* · Sim, Woo-Kyu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ABSTRACT

Borimsa Temple in Jangheung, one of the Goosanseonmoon of Shilla Dynasty, calls for a study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because it has very significant elements in cultural and ecological landscaping aspect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landscaping elements of Borimsa Temple since the 17th century in order to newly recognize cultural landscaping value of space composition elements for traditional temple and to verify landscape architectural position. For research method, literatures such as Sajeonggi (事蹟記), Joongchanggi (重勅記), a surveyed map by Fujishima Gaijiro in 1928 and Joseon Gojeogdobo (朝鮮古蹟圖譜) and modern documents including Borimsa Temple Precision Ground Survey Report and photographic records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provincial governments were examined together with a field survey in order to trace changes in landscape elements such as buildings within the temple site, pond and temple forest.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First, for geographical locations of Borimsa Temple, it is located in an auspicious location and Shipyuknahansang and Cheonbul were placed in a supplementary purpose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Bojoseonsatapbi. Compared to Namhwaseonsa Temple in China, it has a similar environmental composition but the fact that buildings were placed on platforms is a distinctive difference. Second, architectural landscape of Borimsa Temple went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Korean War and still going through changes today. Thus, there shall be som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o establish an archive of past landscape data. Third, the contents of Borimsa Temple Sajeonggi suggests that the pond of Borimsa Temple had been in a indeterminate form with stones on the outer edge. Its name could have been Yongcheon (湧泉)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Joongchanggi. Also, the current landscape, in comparison with past photographs, is a result of changes from surface raise occurred by ground reinforcement within the temple site. Fourth, Jangsaengpyoju (長生標柱) mentioned in Bojoseonsatapbi and Borimsa Temple Sajeonggi was thought to be the dried juniper tree in front of Daewoongbojeon, which can be found in past photographic documents but, it is now assumed to be Seokbihyeong (石碑形) considering the Gukjangaeng and Hwangjangaeng of Dogapsa Temple of the similar time period. Moreover, Hongsalmoon mentioned in Joongchanggi was established by King's order after the Manchu war of 1636 in praising of Buddhist monks those who had volunteered to fight for the country. Fifth, it is apparent in Borimsa Temple Joongchanggi that geomancy was a consideration in landscaping process of Borimsa Temple, and the record indicates that pine trees, bo trees and persimmon trees were planted. Sixth, tea tree forest was verified of its historical root that is Seongchailyeo from Unified Shilla through passing down of Jeong Yak-yong's Goojeunggoopo method and relevant documents of Seon Master Choui and Yi Yu-won. Seventh, nutmeg tree forest suggests that nutmegs were used in national ceremonies and for medical uses. The nutmeg tree forest was also verified of its role as Nachwasoorimdae (a forest built to prevent fire from spreading) through aerial photographs and placement of a forest reserve.

Key Words: Borimsa temple, landscape elements, landscape interpretation, Temple, Temple forest

† Corresponding Author : Sim, Woo-Kyung,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South Korea, Phone: +82-2-3290-3044, E-mail: wksim@korea.ac.kr

국문초록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 장흥 보림사는 문화·생태경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조경분야의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로 17세기 이후 장흥 보림사 경관요소의 변화를 고찰하여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조경사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 장흥 보림사 일원의 경관요소에 대해 현장답사와 사적기(事蹟記), 중창기(重創記), 1928년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의 보림사 실측도,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등의 관련 고문헌과 보림사정밀지표조사보고서, 국가기록원 및 전남 장흥의 과거 사진자료를 통해 경내 건축물과 지당, 사찰림 등의 경관요소의 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림사의 입지는 보조선사탑비의 내용을 통해 풍수적으로 길지에 위치함을 알 수 있으며 십육나한상과 천불로 비보하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남화선사와 비교했을 때, 주변의 환경구성은 비슷하지만 단을 쌓아 건물을 배치한 것은 차이점으로 보였다. 둘째, 보림사의 건축경관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현재까지 경관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과거 경관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보림사의 지당은 보림사사적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만든 부정형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창기의 내용을 통해 지당의 이름을 용천(湧泉)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경관은 과거의 사진과 비교해보았을 때 경내 기반사업으로 인한 지표의 상승으로 변형을 가져온 것으로 보였다. 넷째, 보조선사탑비와 보림사사적기에 언급되고 있는 장생표주(長生標柱)는 한국전쟁 이전 사진자료에서 나타난 대웅보전 앞의 마른 향나무로 추측하고 있으나 도갑사의 국장생과 황장생을 참고하였을 때 석비형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보림사 중창기에 나타난 홍살문은 병자호란이후 승군의 충성에 대한 사액으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보림사 중창기에서 보림사의 연못 조성 등 사찰경관요소 조성 시 풍수지리를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소나무, 보리수, 감나무의 식재기록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섯째, 차나무림은 정약용의 구경구포법 전수와 초의선사의 보림백목차, 이유원의 가오고락 등 관련 문헌을 통해 통일신라부터 시작된 선차일여의 다맥을 이어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곱째, 비자나무림은 관련 고문헌을 통해 비자가 국가의 제사와 의약약품으로 쓰였고 항공사진 및 보호림 지정구역의 위치를 통해 비자림이 내화수림대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경관요소, 경관해석, 보림사, 사찰, 사찰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라 하대 구산선문(九山禪門)의 개창이다. 희양산, 봉림산, 성주산, 가지산, 동리산, 실상산, 사자산, 굴산산, 그리고 수미산에 산문을 이룬 선종가람들은 이 시기의 불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보림사는 구법승 원표대덕이 창건하였을 때는 화엄종 사찰이었으나 신라현안왕 때에 중국 당대 남종선 서당지장(西堂智藏)의 선택을 이은 도의(道儀)선사와 그의 제자 염거(廉居)화상을 거쳐 보조선사 체징(普照禪師 體澄)이 법통을 이어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 것이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에 위치한 보림사에는 국보 117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44호 남북삼층석탑 및 석등, 보물 제156호인 서부도, 보물 제157호인 보조선사 창성탑 및 보물 158호 창성탑비가 있다. 이 중 보물 156호인 서부도만이 고려시대 유물이고 나머지는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다. 많은 문화재가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사와 깊이가 있는 사찰이다. 또한 보림사 뒷산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비자나무숲은 면적은 3ha 정도로 넓지는 않지만 나이 많은 비자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다. 이처럼 보림사는 문화,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

다. 하지만 Jung(2005)과 Hong(2001)의 문헌에 소개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조경분야의 연구가 미미하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조경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보림사의 17세기 이후 경관요소를 고찰하여 한국 불교의 구산선문 사찰경관을 좀 더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장소적 범위는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에 위치한 보림사 경내 경관요소와 주변 사찰림이며 시간적 범위는 보림사 관련 최초의 자료 발간시기인 17세기 이후로 한정한다. 연구방법은 현장답사와 함께 관련 문헌자료와 사진자료를 조사하였다. 관련 문헌자료 중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기(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蹟記)」는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에 소장(1954.10.26.1911/3445) 되어 있었으나 1967년 이기백 교수가 입수하여 고고미술 제8권 제4호(통권 81호) 부록에 최초로 공개되었다. 황명천순연중기(皇明天順年中記, 1457~1464)에 기록되었으며 전반부에는 보림사창건연기설화, 후반부에는 보조선사영탑비문의 내용이 요약되어있다[1]. 「장흥부가지산보림사법당각전각요사중창변화연월여공사화주별좌등방합기록(長

興府迦智山寶林寺法堂各殿閣僚舍重棚幡瓦年月與工師化主別座等芳啣記錄)은 해남 대흥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강희 35년 병자5월(1696년)에 (康熙三十五年丙子五月 日書) 쓰여졌다.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장흥도호부 부분이 필사된 장흥여지승람, 사찰운영과 승려활동 갈등내용이 기록된 취변록(就變錄), 중창기의 세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창기는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의 후계인 충면(忠勉)이 기록을 시작하여 1658년~1954년까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있다[1]. 또한 일제강점기의 자료로서 1930년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에 실린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1899~2002)의 1928년 보림사 실측도,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고찰하였다. 1995년에 실시한 순천대학교박물관의 「가지산 「보림사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장흥문화원에서 2001년 출간한 「역주 보림사 중창기」 등 관련 문헌과 국가기록원 및 장흥 관련 사진자료를 통해 먼저 보림사의 입지와 배치, 사찰립의 구성과 역사를 살펴보고 보림사 대적광전, 대화당, 조사당의 일제강점기 이후 경관 변화와 지당, 장생표주의 경관요소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입지

보림사는 가지산을 배경으로 탐진천이 휘돌아 나가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으로는 화학산, 서로는 국사봉, 동으로는 봉미산, 남으로는 용두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조선사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에 따르면 보림사의 터는 형세가 빼어난 산세와 깊숙한 골짜기가 첩첩히 둘러싸인 곳에 천불(千佛)을 안치할 수 있는 평평한 분지의 넉넉하고 안온한 길지이며 십육나한상(十六羅漢像)을 조성하여 서쪽 물가에 안치함으로써 도량의 센 기운을 진압하고 천불로 지덕이 흥성하도록 했다. 이

것은 홍수로 인해 급류가 될 때, 나한전을 물가의 중요지점에 건립함으로써 하천유로를 유지하는 독과 방벽의 역할을 하여 절을 보호하는 비보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2]. 또한 보림사사적기에는 용이 있는 연못을 보고 정미롭고 기이하며 서역, 중국과 같은 곳임을 알아보고 상세히 맥을 살피고 경관을 측정하며 터를 잡았다고 하였다. 사적기에서 언급한 서역과 중국의 보림사를 찾아본 결과 인도의 보림사는 현재 정보를 알 수가 없었고 중국 선종의 육조 혜능이 법문을 열고 그의 등신 불이 안치된 광동성(廣東省)의 소관시(韶關市)의 남화선사(南華禪寺)의 과거 명칭이 보림사임을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사찰의 배치만을 비교하였을 때 정문에서 주불전이 일직선의 축을 이루고 있는 점과 하천이 S자 형으로 흐르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사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남화선사는 산등성이에 단을 형성하였고 장흥 보림사는 평지에 입지한 것이 차이점이다 (Figure 1 참조).

2. 공간구성

1) 경내 건축물의 배치

보림사는 통일신라시대의 쌍탑 1금당식의 가람 형태를 가졌지만 일주문과 사천왕문, 대적광전으로 이어지는 축선과 대웅전의 축선이 직각으로 교차되어 있으며 이는 화엄사에서 각황전과 대웅전의 축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보림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요 법당이 확대되어 이루어진 새로운 가람배치 형식으로 보인다[1]. 보림사 중창기에는 총 46채의 건물명이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전쟁시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서 한국전쟁 이전의 보림사 관련 사진과 도면자료는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조선건축사론」이 유일하다. 1928년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실측조사자료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경관과는 달리 대웅전은 산과 바로 맞닿아 있었으며 주변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조선 후기 대웅보전 주변의 식재기록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Figure 2-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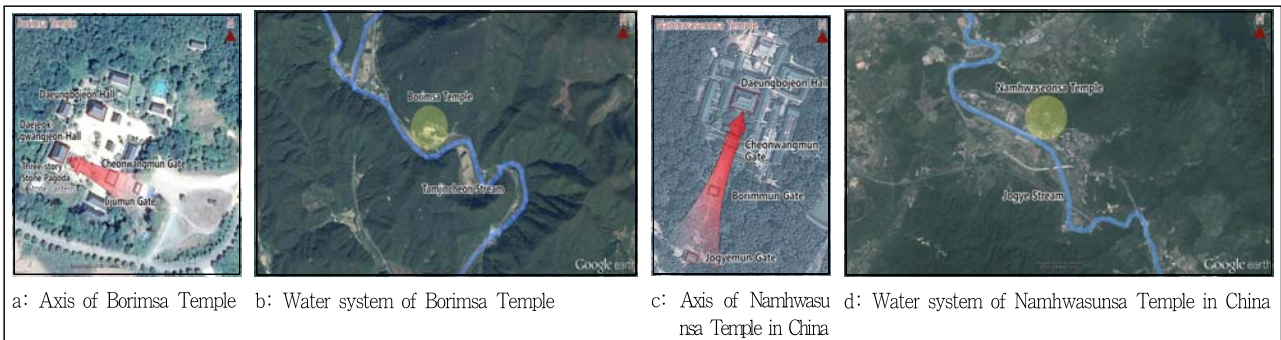


Figure 1. Satellite Image Map a-d. [3], Edited by resear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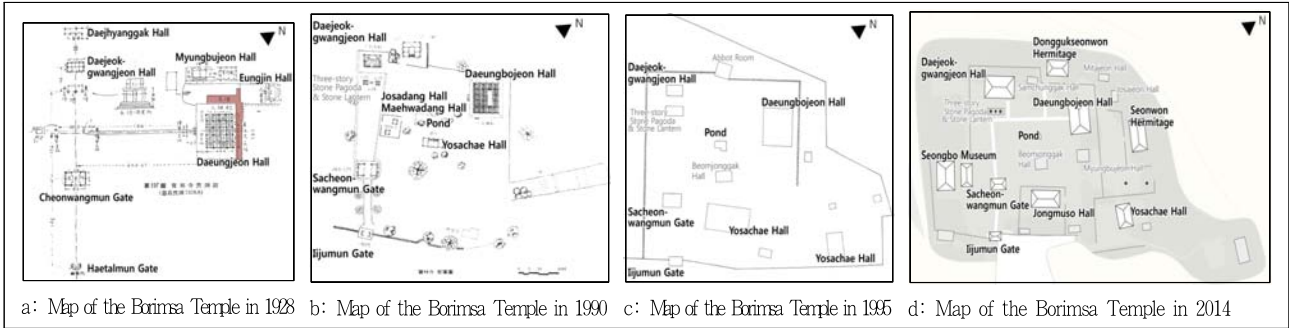


Figure 2. Map of the Borimsa Temple
a.[4], b.[5], c.[6], d.[7]. Edited by researcher.

2) 정의 위치한 사찰림의 역사

① 차나무림(茶林)

보림사는 수행과 차가 둘이 아니라는 선차일여(禪茶一如)의 근본도량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8]. 이는 가지산문을 개창한 보조선사의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례가 포함된 청규를 만든 중국의 승려인 백장희해(百丈懷海)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매년 불상에 햇차를 공양하고 있으며 장흥지방의 청태전 차는 각종 차대회에서 상을 받는 등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보림사를 방문하여 대웅보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의 비자림의 하부에는 거의 대부분 차나무가 자리잡고 있다(Figure 3 참조). 이와 관련하여 1545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권 151의 전라도 장흥도호부부분을 보면 차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장흥 지방의 다소(茶所) 13곳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흥지역 전체가 차 생산지로서 유명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茶. 所十三, 饒良, 守太, 七百, 乳井山, 加乙坪, 雲高, 丁火, 昌居, 香餘, 熊帖, 加佐, 居開, 安則谷.

다소(茶所)가 13이니 요량(饒良)·수태(守太)·칠백유(七百乳)·정산(井山)·가을평(加乙坪)·운고(雲高)·정화(丁火)·창거(昌居)·향여(香餘)·웅점(熊帖)·가좌(加佐)·거개(居開)·

안척곡(安則谷)이다[9].

조선 후기의 기록은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는 스승 완호의 삼여탑(三如塔)에 새겨넣을 서문을 신위(申緯, 1769~1845)에게 부탁하고 홍현주(洪顯周, 1793~1865)에게 명시를 받기 위해 선물로 보림백묘(寶林白茅)차를 선물한 기록과[10]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시문집인 「가오교략(嘉梧藁略)」 책(冊) 4의 죽로차(竹露茶)라는 시에 보림사의 차는 정약용이 구중구포의 방법을 전수하였고 호남의 4가지 보물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11], 16세에 초의(草衣)에게 구족계를 받은 범해선사(梵海禪師, 1820~1896)의 문집 권2에 차(茶) 노래에는 '보림사 작설차는 관영(官營) 부고(府庫)에 가져가고'라는 구절이 있다[11]. 또한 일제강점기 모리다메조(森爲三)가 작성한 '중국에서 가져온 사찰에 관련된 식물'에서 전라도의 차나무는 그 산지가 사찰의 경역에 속하고, 산허리 이하의 남향의 햇별이 잘드는 땅에 무리지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승려의 손에 종자가 심겨서 그 후예가 자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12]. 또한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 8곳¹⁾의 전라도 지역 중 한곳으로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의 산을 언급하고 있다[12]. 이처럼 장흥지역은 조선중기에 호남지역 차 생산의 중심지였으며 보림사의 차나무림은 정약용이 차를 만드는 구중구포법을 전수하고 초의선사가 아꼈던 보림백묘차를



Figure 3. *Camellia sinensis* in Borimsa Temple Forest
a-b.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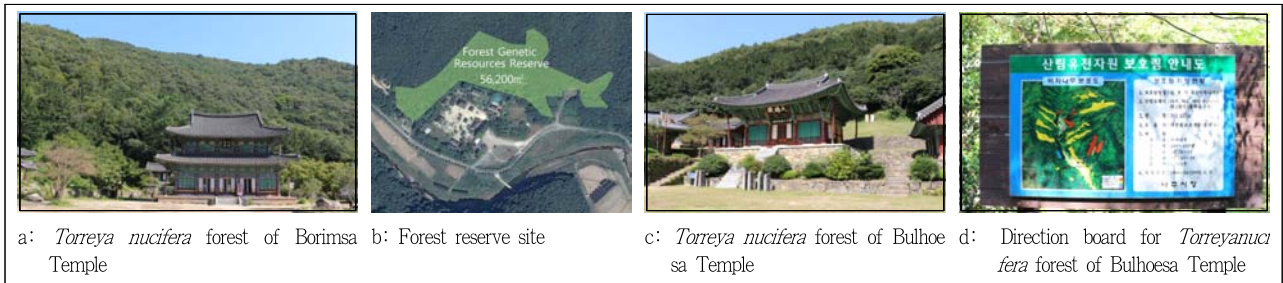


Figure 4. *Torreya nucifera* Forest
b. [8]. Edited by researcher.

생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조선 후기 다맥을 이어가는 장소였음이 알 수 있다. 1995년 순천대학교 박물관의 정밀지표조사시 보림사의 동암지, 성전암지, 송대암지, 남암지, 포판암지 등으로 축대, 와편과 함께 우물도 남아있었다. 우물은 생활용수 뿐 아니라 차를 끓일 때 필요한 것으로 각 암자에서 차를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② 비자나무림(榧子林)

보림사 대웅보전의 북쪽 일원에 비자림이 조성되어 있다. 현장답사 시 보림사의 종무원들과 스님들의 구두 설문을 통해 비자림은 열매를 구충제로 쓰기위한 식재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보림사의 비자림을 천연보호림 제10-4호('82.12. 3)로 지정하며 '신라시대에 창건된 보림사 주변에 있는 숲으로서 그 당시부터 인공식재되어 울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의 비자나무숲은 여러 차례의 벌채, 이용과정을 거쳐 그 후계림으로 남아 있어 학술적 가치를 가지며 경관림과 목재의 가치가 높음'을 그 사유로 적고 있다[13]. 사료가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1530년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7권에서 전라도 장흥도호부의 토산 목록 중에 '비자(榧子)'가 나타나며 역원의 명칭 중 '비자지원(榧子枝院)'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일원에 비자림이 곳곳에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97년(숙종 23)에 제작된 종묘의궤 4책에는 계기에 담은 실과(實果) 목록에 '비자(榧子)'가 포함되어있다. 19세기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먼저 1808년에 작성된 만기요람(萬機要覽)을 들 수 있다. 재용편1 각공(各貢)에는 선혜청 57공(宣惠廳五十七貢) 중 봉상시(奉常寺)는 삼남의 비자(榧子), 분봉상시(分奉常寺)는 삼남의 비자(榧子)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는 의약의 공급과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던 관서인 전의감(典醫監)에는 호남의 비자를 사용하고 조선시대 때 의약과 서민을 구료(救療)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던 관서인 혜민서(惠民署)에는 영남의 비자(榧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국가제사용으로 비자가 공급되었던 사실과 의료용으로는 호남지방의 비자가 조금 더 귀중하게 취급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의 다산시문집 제5권의 중이 소나무를 뽑는 노래(僧拔松行)에서 "아침에 관첩 내려 비자를 찾는다니(官帖朝來索榧子)"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로 보아 19세기에 강진, 장흥 등 호남지방의 비자가 공물로 납부되었고 스님들에게 사찰 주변의 비자채취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38년 일본인 모로오까다모스(諸岡存)과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의 식생조사 결과 소나무, 대나무, 비자나무, 차나무로 조사되었던 기록이 있다 [14].

최근 2014년 5월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을 확대하여 지정을 하였다. 또한 겨울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보호림 지정구역을 보면 비자나무가 식재되어있는 곳이 사찰과 바로 인접하여 병풍처럼 둘러진 것을 볼 수 있다. 나주 불회사 등과 유사하게 상록성으로 내화성이 있는 비자, 동백, 차나무 등의 식재패턴이 확인된다(Figure 4 참조). 이것으로 보아 비자림은 내화수림대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보림사의 경관요소 해석

1) 건축물

① 대적광전(大寂光殿)

보림사는 보조선사가 859년 10월, 선종 가지산문을 개창하기 이전에 화엄(華嚴)신행자인 원표(元表)가 주석하면서 화엄사찰로 859년 2월 철조비로자나불을 봉안하였다. 현재의 대적광전 앞에 있는 두 개의 탑에서 탑지가 나와 현재의 위치와 과거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규모는 건물기단과 초석들이 현 건물규모보다 크게 노출되었다[6]. 현재의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중창기의 불사내용으로 보아 조선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창기에 대적광전은 고법당(古法堂), 대웅보전은 신법당(新法堂)으로 명칭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명칭은 법당이 일산의 주지가 부처를 대신하여 상당 설법하는 곳으로 선원청구에 나와있어 선종가람에서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문헌에 나타난 보림사 건축물의 경관에 대한 시로 담헌 이하곤(李夏坤)의 '보림사'에는 연못과 용에 대한 연기설화, 중문, 천왕, 철불, 보조비석, 층각에 대한 경관을 시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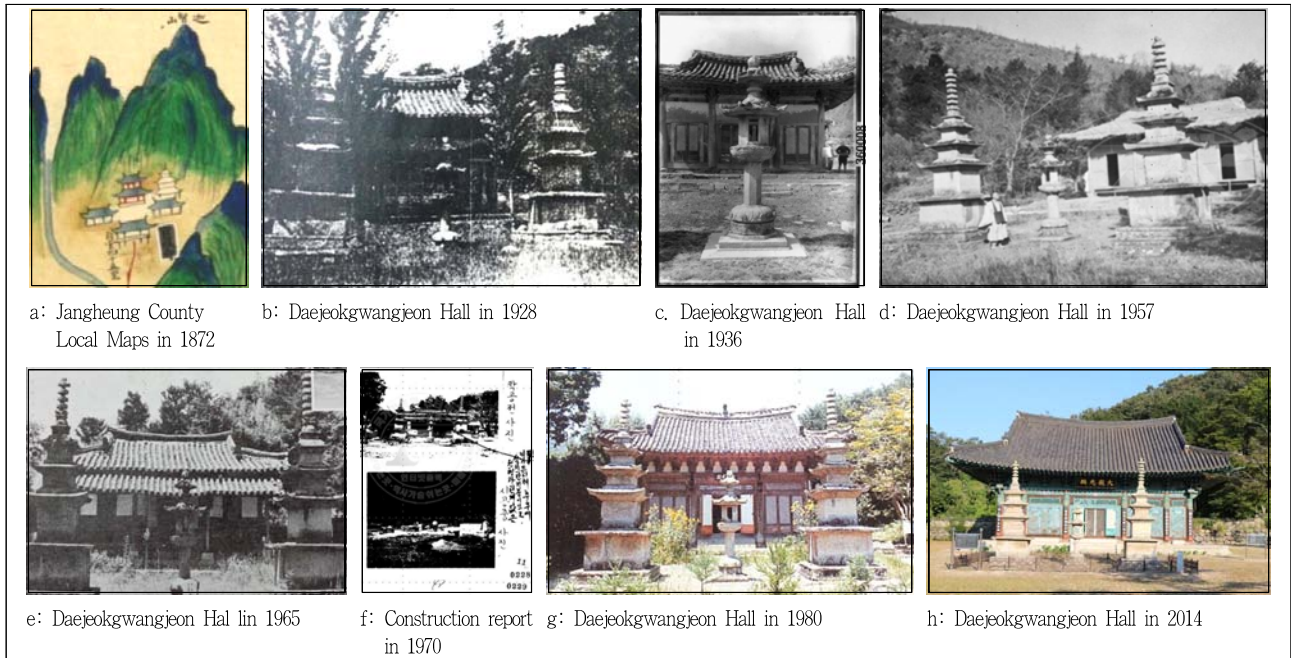


Figure 5. Daejeokgwangjeon Hall of Borimsa Temple
a.[15], b.[4], c.[16], d·f.[17], e.[18], g.[1].

여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의 지방지도에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2층 누각과 2층 법당, 흰 석탑이 나타나고 있다. 1928년의 대적광전은 팔작기와지붕에 주심포의 형식으로 건축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새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1957년의 모습에서는 간이 건물과 같은 모습으로 띠로 지붕을 얹은 모습이 확인된다. 그 후 중수된 것으로 보이는 1965년의 모습은 겹지붕으로 일본풍을 보이고 있고 1970년 태풍의 피해로 수리를 하기전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1980년의 자료에서 보이는 대적광전은 현재 대웅보전 옆으로 옮겨 명부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적광전은 증건하였다(Figure 5 참조).

Table 1. Yearly Condition of Daejeokgwangjeon Hall

Year	Condition	References
1872	Multi-storied, Hipped-and-Gable Roof(tile)	[15]
1928	Single-storied, Hipped-and-Gable Roof(tile), Three bay(facade)	[4]
1936	Single-storied, Hipped-and-Gable Roof(tile), Three bay(facade), Jusimpo	[16]
1957	Single-storied, Hipped-and-Gable Roof(Straw), Three bay(facade), Jusimpo	[17]
1965	Single-storied, Hipped-and-Gable Roof(tile), Layered Roof, Three bay(facade), Jusimpo	[18]
1970	Single-storied, Hipped-and-Gable Roof(tile), Layered Roof, Three bay(facade), Jusimpo	[17]
1980	Single-storied, Hipped-and-Gable Roof(tile), Three bay(facade), Dapo	[1]
2014	Single-storied, Hipped-and-Gable Roof(tile), Five bay(facade), Dapo	Researcher

② 매화당(梅花堂)과 조사당(祖師堂)

1975년의 국가기록원 사진자료와 1990년 전라남도의 사진자료에는 조사당과 매화당이 보이지만 현재는 허물 없어진 상태이다(Figure 2, 6 참조). 특히 매화당은 창건설화와 관련된 건물로서 원표대덕 스님이 보림사를 창건하기 위해 가지산으로 왔을 때 아홉용이 잠긴 용궁 연못을 발견하고 사찰 터를 정하려고 할 때 스님을 도와서 용을 내쫓고 창건을 도운 방장산 천왕의 딸, 성모천왕이었던 선아(仙娥)가 모셔져 있었다[6]. 선아는 현재 보림사에서 매화보살(梅花菩薩)로 모셔지고 있고 탕화가 대적광전에 전하고 있고 조사당은 현재 대웅전 북서쪽에 조사전이란 건물명으로 새롭게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보림사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현재 활발한 중창불사를 통해 경관의 변형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과거의 경관기록, 문헌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2) 지당(池塘)

현재 해당 대상물은 지표면에서 1m정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1960년의 기념촬영사진과 1975년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사진, 1993년 경내 지반정리사업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의 경관을 추측해보면 대상물 주변의 지반은 현재와는 달리 비슷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995년 순천대학교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보고서에도 현 지표보다 1m이상 아래에 놓여있는 점으로 보아 조성시기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Figure 7-a 참조). 또한 현장 확인 결과 대상물은 석재를 파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가공된 장방형의 석재로 둘레를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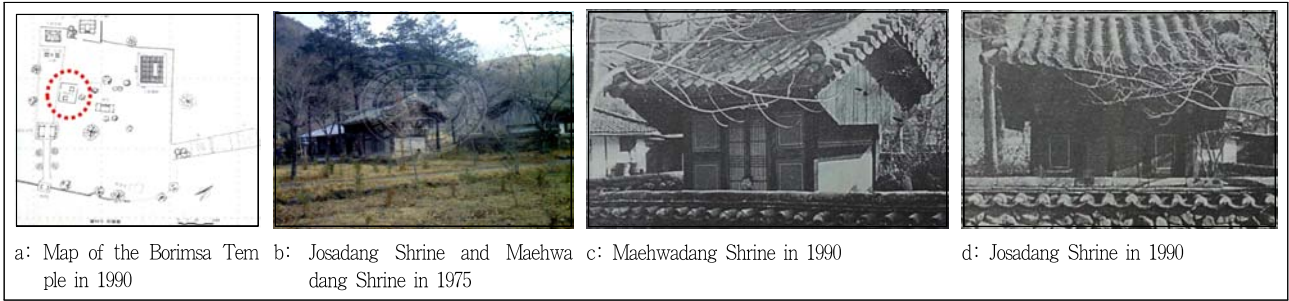


Figure 6. Josadang Shrine and Maehwadang Shrine of Borimsa Temple
a.[5], b.[17], c-d.[5].



Figure 7. Pond of Borimsa Temple
a.[18], b.[17], c.[6].

르고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면 아래는 모래와 자갈이 있어 그 사이로 물이 솟아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경사 관련 서적[19][20]에서 해당 지당을 명칭하고 있는 석조(石槽), 석지(石池)의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지당의 형태와 관련하여 사적기의 '동쪽 법당의 불감 아래에 당초의 못물의 한 곳을 남겨 두었는데 작은 돌을 쌓아서 작은 구덩이를 만드니'라는 부분으로 보아 이 못의 초창기 형태는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만든 부정형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1975년에 촬영된 지당 사진(Figure 7-b 참조)에서 둘러져 있는 돌이 만약 지당의 석축에 사용되어졌던 흔적이었다면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타원형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타원형이라면 보림사 지당과 관련된 구룡 설화는 양산 통도사의 구룡지 설화와 상당히 유사하므로 지당의 형태도 유사함이 확인되는 것이다.

보림사 중창기에서 1718년 4월의 용천료(湧泉寮) 중건 기록은 '용천(湧泉)'이라는 수공간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현존 지당의 명칭으로 추측된다. 또한 건축물 중건연도가 1718년이므로 그 이전에도 '용천'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1].

3) 장생표주(長生標柱)

현재 보림사 경내에는 한국전쟁 시 불타고 없지만 그 전에 찍은 조선고적도보와 그 외 장흥 관련 사진에는 대웅보전 앞에 가지가 없는 마른 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통일신라 현강왕 10년(884)에 세워진 보조선사탑비(普照禪師塔碑)와 황명천순연중기(皇明天順年中記, 1457~1464)에 필사한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新羅國武州迦智山寶林寺事蹟)에는 759년 경덕왕의 명으로 세워진 장생표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장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조선고적도보에서 보이는 마른 나무기둥에 대해 1938년 향토사학자 석남 송석하는 '마른 향나무 한그루가 있는데 옛날부터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있으며 보조선사가 세운 것으로 전설되어 오지만 원표선사(元表禪師)를 위한 장생표주(長生標柱)와 관련이 있거나 않은가 한다'고 하였다[22].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의 영암 도갑사 근처에 위치한 국장생과 황장생으로 보아 솟대형이 아닌 석비형일 가능성이 높다(Figure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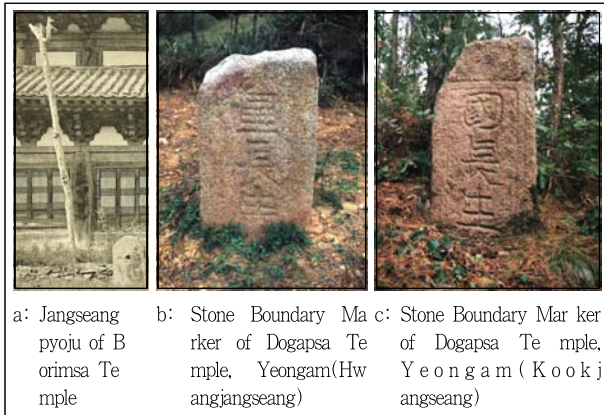


Figure 8. Jangseang of Temple a. [23], b-c. [24]

4) 보림사 중창기에서 나타난 조경요소

보림사 중창기에는 사찰 경내·외의 조경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Table 2 참조). 먼저 1712년 청련암의 앞에서 홍살문까지 탑을 조성하고 소나무를 식재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지방지도 를 보면 장흥도호부 중심에 홍살문이 그려져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사찰의 입구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언급된 홍살문은 실제 용주사, 동학사, 쌍계사의 입구에서 볼 수 있지만 흔하지 않은 사례이다(Figure 9 참조). 홍살문이 세워질 이유인 층, 효와 관련된 사찰의 기록을 찾아보니 원래 일주문의 현판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었다.

順治14年8月日 禮曹 守禦廳 兩司帖額 擁正4年3月日 施行

순치 14년은 1657년(효종 8년), 옹정 4년은 1726년(영조 2년)이므로 1657년에 국가 수호 사찰이 되고 1762년부터 보호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현판은 외호문 현판과 함께 보림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Figure 9 참조). 1657년 무렵은 병자호란이 지나가고 국가의 위기에 몸을 바쳤던 승군의 노고를 치하했던 시기이다. 당시 불교계는 크게 청허계와 부휴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보림사는 「보림사사적기」를 작성한 지족충면(知足忠勳)등 부휴계 승려들이 주석한 사찰이었다. 호남지방의 승군 모집과 그 후 나라에 대한 충성에 대한 사액과 홍살문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사찰 입구에 연못이 존재하지 않지만 1719년에는 사찰 입구에 연못을 조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스님들 사이에 물의가 생겼다. 이는 1715년 목허둔 논에 나무를 심는 것과 더불어 풍수적인 고려에 의한 염려로 보인다. 중창기에서 보이는 식재 수종으로는 소나무, 보리수, 감나무이며 현재 대웅보전 근처에는 수령이 오래된 감나무가 보인다. 또 사찰의 중창을 위해 염불계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는 지금까지 조사된 염불계와 관련하여 4번째로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당시 염불계의 대부분이 사찰 중창을 위한 목적으로 「보림사중창기」에서 보이는 염불계(念佛契)도 이에 해당한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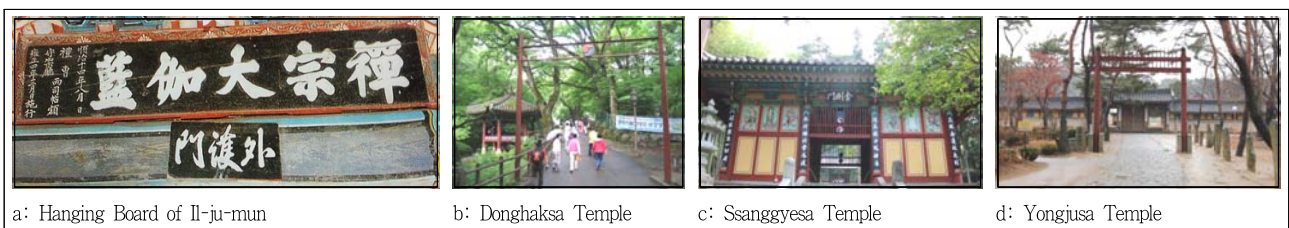


Figure 9. A Red gate of Temple a. [1]: 44, b. [25]

Table 2. Information relating to landscape architecture in rebuild record of Borimsa temple

Date	Contents
February 1, 1712	· Buddhist monks in consultation with making pagoda and planting tree to the Cheongryeon from Red gate.
Lunar January 1715	· Planting trees on four 'majigi' of old paddy by majority opinion.
April 5, 1719	· Created a pond in front of temple, but the problem is causing.
March 1791	· It is planted Bodhi tree in the yard between Neunginjeon Hall.
December 1789	· Organized chanting system, Planted 'bulyu' tree ²⁾ , Planted persimmon tree.

Source: [21], Edited by researcher.

IV. 결론

본 연구는 전남 장흥 보림사 일원의 경관요소를 현장답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림사의 입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곡류하천이 있는 평지에 위치하고, 보조선사탑비를 통해 풍수적으로 길지에 위치하며 십육나한상과 천불로 비보하려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남화선사와 비교결과 사찰주변의 자연환경은 비슷하나 단을 쌓아 건물을 배치한 것이 차이점으로 보였다.

둘째, 보림사의 건축경관은 화엄사상과 선종의 결합으로 나타나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경관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과거 경관자료 아카이브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보림사의 지당은 보림사사적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만든 부정형의 못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창기의 내용을 통해 지당의 이름을 용천으로 추측해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경관은 과거의 사진과 비교해보았을 때 경내 기반 사업으로 인한 지표의 상승으로 변형을 가져온 것으로 보였다.

넷째, 보조선사탑비와 보림사사적기에 언급되고 있는 장생표주는 한국전쟁 이전 사진자료에서 대응보전 앞의 마른 향나무로 추측하고 있으나 통일신라~고려시기의 도갑사 국장생, 황장생을 참고하였을 때, 솟대형이 아닌 석비형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보림사 중창기에 나타난 홍살문은 병자호란이후 승군의 충성에 대한 사액으로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보림사 중창기에서 보림사의 연못 조성 등 경관요소 조성시 풍수지리를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소나무, 보리수, 감나무의 식재기록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섯째, 보림사의 차나무림은 정약용의 구중구포법 전수와 초의선사의 보림백모차, 이유원의 가오고략 등 관련 문헌을 통해 통일신라부터 시작된 선차일여의 다맥을 이어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곱째, 비자나무림은 관련 고문헌을 통해 비자가 국가의 제사와 의료약품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항공사진 및 보호림 지정구역의 위치를 통해 비자림이 내화수림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주 1) ① 전남 나주군 다도면 불회사 ②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의 산 ③ 전남 화순군 동암면 천불천탑이 있는 다화산 ④ 전남 나주읍 다보사가 있는 금성산 ⑤ 전남 장성군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 ⑥ 전남 광주 이근의 무등산 ⑦ 전남 구례군 화엄사 ⑧ 전남

순천군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
주 2) 사찰의 불전(佛殿)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27].

REFERENCES

- [1] Choi, I. S., Kim, H. T. and Yang, K. S.(2002). Borimsa. Seoul: Hakyon Publishing Company
- [2] Cho, S. H., Sung, D. H.(1998). A study on the location of Zen Buddhist temples from feng-shui perspective. Social Science Research, 5: 1-25
- [3] <https://www.google.com/maps>
- [4] Fujishima, G.(1969). Chosen kenchiku shiron. Seoul: Kyungin Publishing Company.
- [5]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1990). Temple of Jeonnam I. Gwangju: Jeollanam-do Provincial Government.
- [6]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Museum(1995). Report of inquiry in the ground surface of the Borimsa Temple
- [7] <http://map.naver.com>
- [8] <http://www.borimsa.org>
- [9]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free=0&tabid=k&id=k>
- [10] Jung, M.(2011). New wrote tea culture in Chosun Dynasty in Korea. Paju: Kimyoungsa.
- [11] Yoon, K. H.(2011). Tea cultural material in Korea. Seoul: Ereonachim Publishing Company.
- [12] Song, J. S., Cho, C. R. and Lee, K. P.(2014). Tea culture in Korea for thousands of years 6. Paju: Dolbaegae.
- [13] http://www.forest.go.kr/newkf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WjnzT0zJ10ZS8fN8hZL6DQyqJLLdrWzGpcBLYL3GDpH8MTsbLJvF!-1436770882?nttid=59603&bbid=BBSMSTR_1009&pageUnit=12&pageIndex=955&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KFS_23_04_03&orgId=west
- [14] Kim, M. B.(1991). Tea and Zen in Chosun Dynasty in Korea. Seoul: Borimsa Publishing Company.
- [15] <http://e-kyujianggak.snu.ac.kr>
- [16] http://dryplate.museum.go.kr/program/sub/sub_list_category.jsp?IDS1=C&IDS2=&IDS3=&IDS4=&categorySelect=IDS1&keyCategory=C&searchSelect=&keyWord=&pageSize=12¤tPage=1
- [17] <http://www.archives.go.kr>
- [18] Jangheung Cultural Center(1995). 100 years of Jangheung in Pictures.
- [19] Jung, J. H.(2005). Korea's traditional garden. Kyunggi: Jogyung Publishing Company.
- [20] Hong, G. P., Lee, S. Y.(2001). Korea's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Dongkook University Publishing Company.
- [21] Jangheung Cultural Center(2001). Borimsa Jungchanggi. Jangheung: Mudol Publishing Company.
- [22] http://www.jhtimes.net/bbs/list.html?table=bbs_5&idxno=3579&page=1&total=76&sc_area=&sc_word=
- [23] Joseon Governor-General(1933). Joseongojuckdobo(朝鮮古蹟圖譜). vol. 13.
- [24] <http://www.cha.go.kr>
- [25] <http://blog.daum.net/zmstks/16119816>
- [26] Han, S. G(2006). Study on buddhism and temple fraternities in late Chosun Dynasty in Korea. Seoul: Kyungin Publishing Company.
- [27] http://encyllok.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00013084

원 고 접 수 일: 2015년 2월 08일
심 사 일: 2015년 3월 13일(1차)
2015년 3월 26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5년 3월 26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